

한국어

2025. 9. 27. — 11. 2.
다대포해수욕장

2025 바다미술제 가이드맵

물 위 를 걷 는 물 결 들

Under
currents

9.27. —
11.2.

다대포해수욕장
Dadaepo Beach

Sea
Art Festival
2025
바다미술제

물 위 를 걷 는 물 걸 들

Under—
cup—
rents

전시개요	3
전시감독 메시지	4
관람안내	6
작품배치도	8
전시장소	10
A 다대포해수욕장역	10
B 다대포해수욕장(서측), 다대포해변공원	11
C 물운대 해안산책로	13
D 고우니 생태길	15
E (구)다대소각장	16
F 다대포해수욕장(동측), (구)물운 커피숍	18
참여작가 및 작품	21
전시연계 프로그램	47
종합안내소 & 아트상품	66
추천 관람 코스	68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70

주제	《Undercurrents: 물 위를 걷는 물결들》
기간	2025. 9. 27. — 11. 2. (37일간)
장소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역, 다대포해변공원, 물운대 해안산책로, 고우니 생태길, (구)다대소각장, (구)물운 커피숍
전시감독	김금화, 베르나 피나
참여작가	17개국 23작가 (38명)

언뜻 감지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밑 물결’ (undercurrent)은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공존은 하나의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다가옵니다. 익숙한 질서를 비껴 흐르는 이 밑 물결은, 우리가 맺는 관계와 인식의 감각을 조용히 전환시킵니다.

드넓은 하늘과 한국에서 가장 눈부신 석양이 깃든 다대포는 이 단순한 아름다움 뒤에 복잡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구를 가로막은 방조제, 거대한 퇴적층, 산업 규모의 어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상처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상흔은 바닷속 깊은 곳, 바다의 호흡과도 같은 대사적 리듬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순결한 표면일 뿐, 그 아래로는 무너진 생태와 침묵 속의 상실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그릇이 됩니다—착취의 가라앉은 서사를 가시화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지요. 예술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가? 인간 사이에서뿐 아니라,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공정한 세상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25바다미술제는 17개국에서 활동하는 23개 작가팀, 총38명의 작가들이 함께합니다. 전시는 (구)다대소각장에서 복원된 습지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며, ‘밑 물결’의 리듬 속에서 다대포가 품고 있는 저항, 공존, 회복의 관계망을 재발견하도록 이끍니다. 상처와 지해를 동시에 간직한 물결의 흐름 속에서, 참여와 체험을 통한 새로운 연대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이번 전시는 이 풍경 속에 내재된 생태적 폭력의 역사와 마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바다의 표면에 머물던 익숙한 시선을 넘어, 그 아래에 겹겹이 숨겨진 다성적, 혼종적 풍경들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금화, 베르나 피나

전시기간
2025. 9. 27. (토) – 11. 2. (일) (37일간),
휴일없음

관람시간
10:00 - 18:00 (무료관람)

관람 시 주의사항

1. 작품 접촉 및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작품은
눈으로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람객이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해 배상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 관람객의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자께서 안내 및 지도해주시길
바랍니다.
4. 영상 및 사운드 작품은 예기치 않은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가이드

2025바다미술제 참여 작가와 출품 작품 등 관람
정보를 오디오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국/영문으로
제공되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시장에 마련된
QR코드를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역

다대포해수욕장역은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항구 도시 다대포의 상징성을 담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종착역으로, 물운대와 고우니 생태길, 동·서쪽 해수욕장을 잇는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경계에서 다양한 흐름이 교차하는 장소로, 2025바다미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 내부에는 이진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수백 년 전 다대포 해안에서 일렁였을 파도의 움직임을 오늘날의 관객에게 되살려 보여줍니다.



다대포해수욕장(서측)

부산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는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인상적인 하구 경관입니다. 담수와 해수가 뒤섞이는 이 지역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생태계를 품어왔으며, 광활한 갯벌과 완만한 해안선, 그리고 장대한 석양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 뒤에는 환경 훼손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1987년, 수자원 확보를 위해 건설된 낙동강 하굿둑은 강의 흐름을 차단했고, 이는 생물 다양성 감소와 수질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2022년 일부 수문이 개방되며 생태 복원의 가능성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1990-2000년대 초, 다대포는 항만 개발을 위한 매립 위기에 여러 차례 놓였으나,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통해 해변으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태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시민 저항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됩니다. 오늘날 다대포는 보존과 개발, 기억과 재창조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이주와 산업화, 생태 회복의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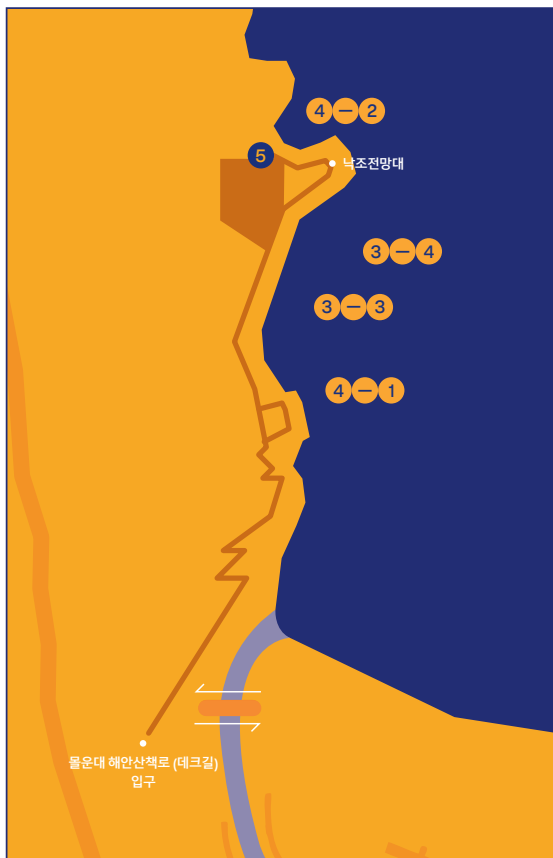
다대포해변공원

다대포해변공원은 다대포해수욕장을 따라 조성된 해양 친화형 공원으로, 바다와 낙동강 하구가 만나는 지형적 특징을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광장과 산책로,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전망 포인트들이 있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며, 석양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운대 해안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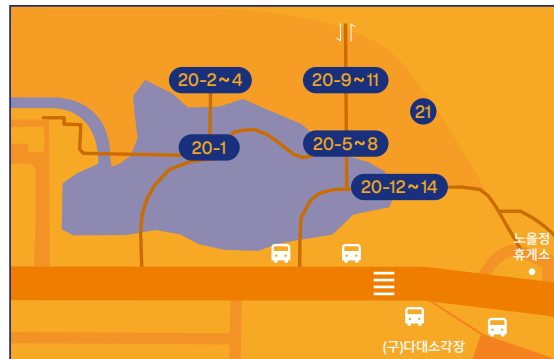
물운대 입구에서부터 낙조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데크길은 다대포 남서쪽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절벽 위 산책로로, 육지와 바다, 하늘이 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관통하며 방문객을 안내합니다. 겹겹이 쌓인 암석층과 밀려드는 파도 위로 펼쳐진 나무 데크는 숲이 우거진 해안 경사면에서 한반도의 끝자락 물운대 낙조전망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산책로는 단순한 통로를 넘어, 감각의 경계이자 전환점입니다. 데크의 완만한 곡선을 따라 걷다 보면 다대포해수욕장의 너른 풍경이 시야에 펼쳐지고, 멀리 가덕도 연대봉 능선을 함께 드러냅니다. 발걸음이 이어지는 동안 밀물과 썰물,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저녁노을의 빛이 어우러져 자연의 요소들이 조용한 군무를 이루고, 관람객들은 그 흐름 속에서 자연에 스며든 예술 작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우니 생태길

고우니 생태길은 다대포의 갯벌, 갈대밭, 변화하는 모래언덕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된 탐방로로, 살아있는 해안 생태계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고우니'라는 이름은 고니에서 유래했으며, 이 철새는 매년 10월 말이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낙동강 하구에서 겨울을 납니다.

고우니 생태길은 지질학적 풍경이 생태적 연결망으로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철새들의 쉼터이자 바람과 물이 만든 조수의 풍경 속에서 이 길은 '변화의 리듬'을 따라 천천히 걷기를 권합니다.



(구)다대소각장

1998년에 준공된 다대소각장은 사하구, 서구, 중구 일대의 생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시설이었습니다. 폐기물 소각과 함께 열과 전기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수영장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가동이 중단된 이후, 이 거대한 건물은 산업용 기계와 동굴 같은 내부 구조를 간직한 채 방치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경 속에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때 도시의 신진대사를 담당했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해양수산부는 이 장소를 해안 개발 사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었던 이곳은 호텔, 인공 서핑장, 해양치유센터 등 레저 공간으로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오늘날 다대소각장은 방치와 재창조, 기반 시설과 상상력 사이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F 다대포해수욕장(동측)



한때 넓은 백사장이 펼쳐졌던 다대포
해수욕장 동측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해안 침식으로 해변 대부분이 사라지고,
태풍 피해에 취약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이 해안은 최근 복원 작업을 마쳤으며,
2025년 여름, 약 30년 만에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해변은 완만하게 바다로
이어지며, 강한 조류를 막아주는 지형과 주변 상점가
덕분에 다대포 서측의 탁 트인 풍경과는 다른, 보다
차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잔잔한 파도 속에서
방문객들은 물에 잠긴 예술작품들 사이를 유영하며,
해수욕이라는 일상을 촉각적 예술 체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구)물운 커피숍

물운대 입구에 자리한 (구)물운 커피숍은 소박하지만
지역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입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위치한 이 건물은 일상의 리듬과 계절의
흐름이 교차해온 자리에 있습니다.



정확한 건립 연도나 기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물운식당'이었던 흔적과 아카이브 사진은 이곳이 한때 조용한 사회적 쉼터였음을 암시합니다. 현재는 문이 닫혀 사용되지 않지만, 해녀들이 작업 준비를 하거나 미역을 말리는 공간으로 마당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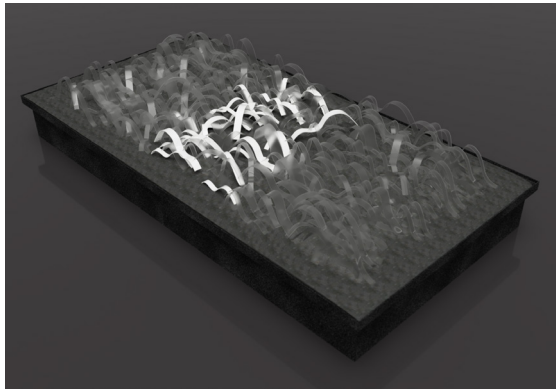
전시 기간 동안 이 장소는 예술적 개입을 통해 임시적으로 다시 활성화됩니다. (구)물운 커피숍은 과거와 현재, 예술과 지역의 삶이 교차하는 '사이 공간'으로서 공공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물 위 를 걷 는 물 걸 들

Under
cup
rents

〈물결의 되울림〉(2025)은 조수와 바람 같은 자연의 미묘한 힘을 시각화하며, 실시간 기상 정보에 반응하여 자신의 리듬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비인간적 존재로 작동합니다.

이진, 〈물결의 되울림〉, 스케치, 2025



〈진화하는 페인팅〉(2025)은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과 바다미술제 관람객이 참여하는 워크숍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작가는 고생물학자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지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고생물 다섯 가지를 선정한 후, 협업 드로잉을 통해 진화의 흐름을 재현합니다.

안체 마에브스키, 〈진화하는 페인팅〉, 스케치, 2025



세바 칼푸케오

B 3 - 1

칼푸케오는 부산의 해양을 연구한 후 칠레에서 사진 퍼포먼스 시리즈인 〈콜요프 시리즈〉 (2025)를 제작했습니다. 5점의 사진으로 구성된 작품은 바다와 강에 직접 띄워져, 관람객에게 마치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B 3 - 2
C 3 - 3
C 3 - 4
F 3 - 5

세바 칼푸케오, 〈콜요프 시리즈-포릴〉, 2025



24

하이케 카비쉬

C 4 - 1

〈마이 시스터즈〉 (2025)는 다대포해수욕장 암반 위 설치된 조각으로, 인간과 비인간이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형상을 제시합니다. 해마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환경 위기 속 연약하면서도 서로를 돌보는 생명체로서 의미를 담았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에서 환경과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게 합니다.

C 4 - 2

하이케 카비쉬, 〈케이시〉, 2024



25

〈표류하는 소리〉 (2025)는 다대포 해변 지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뿔 모양 스피커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부산의 수중 생태계 음향과 다대포 전통 노동요 '후리소리'가 얹힌 사운드를 송출하여, 평소 들리지 않는 바다의 소리를 증폭시켜 들려줍니다.

마르코 바로티, 〈표류하는 소리〉, 스케치, 2025



〈폴리미터〉 (2025)는 서로 다른 시간성을 지닌 재료들이 공존하는 설치 작품입니다. 작품은 화석 연료 기반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외피의 내구성과 가장 다시마로 만들어진 내피의 소멸성을 대비시키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태적 리듬을 표현합니다.

플라스틱 판타스틱, 〈폴리미터〉, 스케치, 2025



〈실버 봄〉(2025)은 60세 이상의 지역 여성들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도시 환경, 젠더, 나이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도시 풍경 속 여성 신체의 현존을 시각화 합니다. 퍼포먼스는 전시에서 영상으로 상영됩니다.

안나 안데렉, 〈실버 봄〉, 2024



〈터치〉(2002)에서 안토니는 모래사장 위 외줄을 걸으며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순간적으로 맞닿았다가 헤어지는 착시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자연은 작가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본연의 리듬에 따라 흘러갑니다.

자닌 안토니, 〈터치〉,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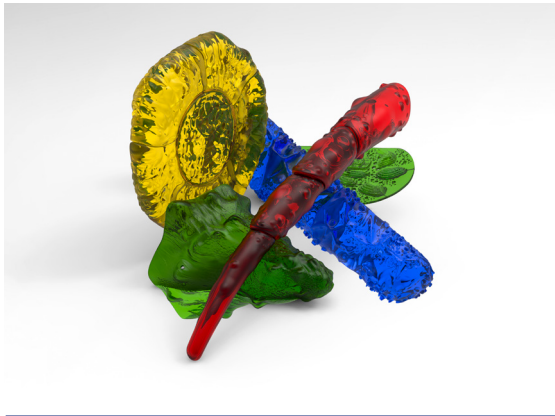


파울라 프로아뇨 메시아스

B 9

〈물결 아래 천 개의 눈동자〉(2025)는 양동이, 삽, 모래를 같은 해변용 어린이 장난감과 낙동강 하구의 생물다양성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집어 들고 유희하며, 놀이를 통해 자연 및 다른 생명체와 친밀하게 연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울라 프로아뇨 메시아스, 〈물결 아래 천 개의 눈동자〉, 스케치, 2025



30

라울 발히

B 10

바람, 새,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자연의 존재들을 체험하는 공간인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2025)는 관람객들이 바람과 새, 그리고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은 만남의 장이자 워크숍을 위한 열린 장소로 사용됩니다.

라울 발히,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스케치, 2025



31

〈죄책감〉 (2023)

비디오 퍼포먼스 〈죄책감〉 (2023)은 마푸체 선조의 땅 '놀루마푸(Ngulumapu)'에 얹힌 역사를 탐구합니다. 시적 내레이션과 몸을 통해, 칼푸케오는 문화적 말살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새겨진 과거를 소환합니다.

〈뛰어오르는 물〉 (2022)

〈뛰어오르는 물〉 (2022)은 마푸체 세계관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물에 주목합니다. 작가는 긴 푸른색 천을 끌며 자연을 따라 물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따라가다가, 강과 폭포의 웅덩이로 들어가면서 물의 힘을 드러냅니다.

세바 칼푸케오, 〈죄책감〉, 2023



〈달의 양면〉 (2021)은 댐 건설로 변화한 태국-라오스 국경 문 강 유역의 생태와 공동체의 삶을 조용히 기록한 영상 설치 작업입니다. 강의 흐름처럼 잔잔한 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회복력과 상실, 그리고 불평등한 현실을 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숨 수파파린야, 〈달의 양면〉, 2021



김상돈의 〈알 그리고 등대〉(2025)는 전쟁, 이주, 재개발로 인한 상실의 감정을 담아낸 조각 작업으로, 빛과 바람에 반응하는 알과 등대의 형상을 통해 기억과 재생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김상돈, 〈알 그리고 등대〉, 스케치, 2025



〈탈의실〉(2025)은 지구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변화로 인해 변형되는 다대포의 환경을 탐구하며 일상적인 해변 시설을 사색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디아나 레로벡, 〈탈의실〉, 스케치, 2025



〈아홉〉(2025)은 다대포 해변에 세워진 아홉 개의 기둥으로 무지개공단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인쇄하여 구성된 작품입니다. 바다와 지역을 잇는 기념비적 형상은 빛과 바람, 파도에 따라 표면을 달리 드러내며, 그 변화 속에서 시간의 흔적과 숨겨진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원교, 〈아홉〉, 스케치,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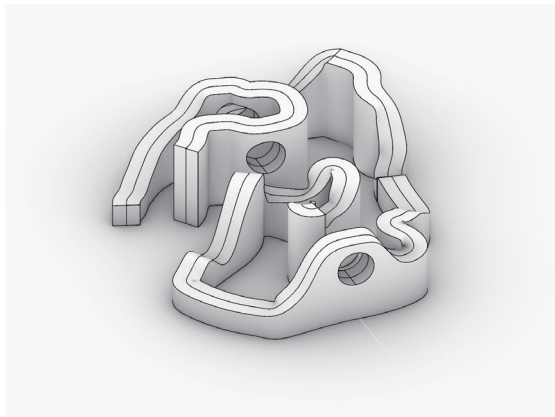
〈편린들: 바닷물결의 기억〉(2025)은 다대포해수욕장과 두 개의 다른 지역에서 수집한 모래 알갱이를 천 배 이상 확대하여 만든 조각입니다. 이 작품은 미시적인 것과 기념비적인 것,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물질사 사이의 대화를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지브 리 & 필립 씨. 라이너, 〈편린들: 바닷물결의 기억〉, 스케치, 2025



〈언덕 사이로 길은 흐릿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풍경은 아름답다〉(2025)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이어지는 설치 작품입니다. 작가는 지역의 목수와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전통 재료인 벗짚을 활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육지와 해안 사이의 경계 지점을 조명하고 이 두 생태계를 잇는 연결점을 보여줍니다.

올라프 홀츠압펠, 〈언덕 사이로 길은 흐릿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풍경은 아름답다〉, 스케치, 2025



〈공굴리기〉(2025)는 낙동강 식생을 모티브로, 공을 굴리는 인간의 즐거움과 숨겨진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의 생존 본능 사이의 유희적인 공생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좋아함'을 매개로 얹히고 공생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미자, 〈공굴리기〉, 2025



마티아스 케슬러 & 아멧 치벨렉

B 19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2025)는 재활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길게 잘라 손으로 엮어 만든 대형 카펫입니다. 관람객들은 작품 아래로 걸으며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의 존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 케슬러 & 아멧 치벨렉,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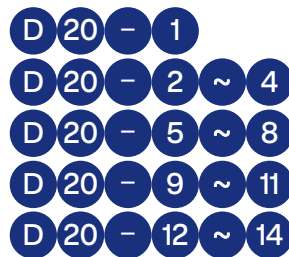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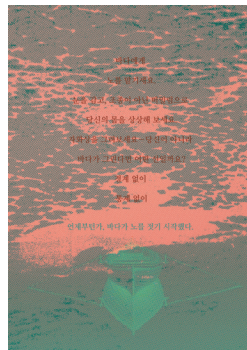


아트-베르크 x (리)커넥팅.어스

D 20

고וני 생태길에 설치된 짧은 지침 형식으로 되어 있는 14개의 '작가 지시문'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일상 속 예술에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이 작업들은 상상력을 통해 생태적 · 사회적 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형섭, 〈인재부턴가, 바다가 노를 젓기 시작했다〉, 2025



〈함께, 걷고, 사유하고 (부산)〉 (2025) 은 산책과 씹, 그리고 식물 문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포스터, 책, 식물을 매개로, 관람객은 책에서 한 구절을 선택해 산책하며 그 구절을 식물에게 소리 내어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주고받는 상호적 교류를 떠올리며, 지역 생태와 고요히 마주하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 포스터의 안내에 따라 책에서 한 구절을 고른 뒤, 산책을 하고, 식물을 청중 삼아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엘 올로브, 〈함께, 걷고, 사유하고 (제네바)〉, 2022-진행중



〈장기 초현실〉 (2025)은 폐쇄된 다대소각장을 새로운 생태의 현장으로 바라봅니다. 소각장 외벽에 걸린 현수막에서 옛 경비실 내부에 설치된 영상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은 과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현재를 만들어가는 시간의 여러 층위를 드러냅니다.

조형섭, 〈장기 초현실〉, 스케치,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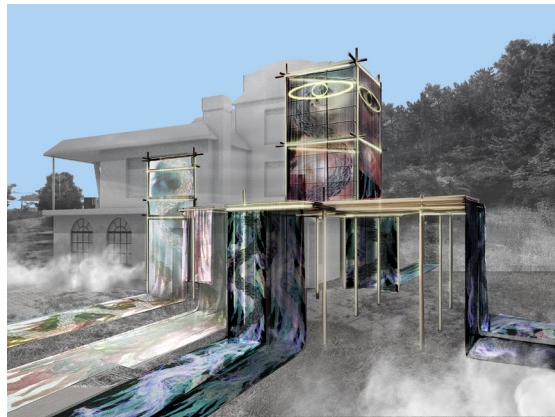
〈부산의 온도 깃발〉(2025)은 부산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시각화한 깃발로, 기후 위기의 현실을 알립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하고 변화를 이루며 같이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울 발히, 〈부산의 온도 깃발〉, 스케치, 2025



〈안개 클럽〉(2025)은 빛, 소리, 그리고 안개로 구성된 장소 특정적 설치로 하나의 살아 있는 공간을 형성합니다. 관람객들은 자유롭게 작품 안을 거닐며, 다대포 해변, 세상의 오래된 영혼, 그리고 물운대의 조상들에게 바치는 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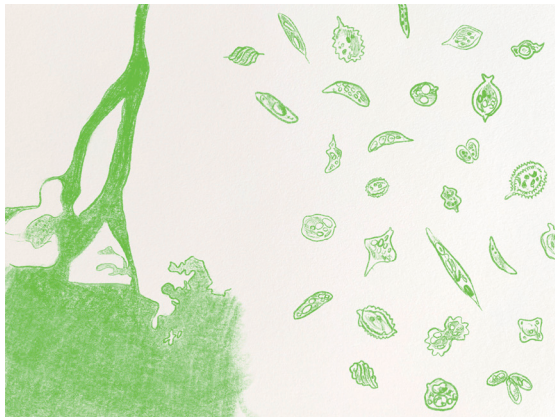
비론 에를 베르트, 〈안개 클럽〉, 스케치, 2025



〈물과 물 사이의 초록〉(2025)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형상화하여 만든 수중 조각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나는 해양 생태계의 풍요로움과 상호 의존성을 일깨웁니다.

※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하에 스노클링을 통한 수중 관람이 가능합니다. 작품이 수중에 설치된 모습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 그리스마, 〈물과 물 사이의 초록〉, 스케치, 2025



밑 물결 - 공공의 만남

2025바다미술제는 동시대 미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 퍼포먼스,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전 연령대의 방문객이 자연과 직접 맞닿은 열린 환경 속에서 생태적, 예술적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시해설 투어부터 연 날리기, 스노클링 세션, 세대를 아우르는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경험과 포용적 배움을 장려하며 예술을 매개로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바다와 그 변화무쌍한 리듬을 새롭게 인식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바다에서 온 지시문〉

유쾌한 예술 지시문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하고, 그림을 그리며, 예술과 생태를 잇는 상상력을 펼치는 야외 어린이 워크숍입니다. 다대포의 자연 환경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구와 다시 연결되어 보세요.

일정: 매주 토요일, 12시, 15시 (일 2회)

장소: 다대포해수욕장(서측),

작품 번호 B10 (12 페이지 참조)

참여방법: 사전 예약 및 현장 참여

대상: 8세 - 13세 어린이

인원: 10명

〈숨은 물결 따라 걷기: 아트 & 네이처〉

전시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모래, 바람, 조수의 리듬 속에 스며든 작품을 따라 걸으며, 다대포 해변의 살아 있는 풍경을 조우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일정: 매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11시, 13시, 15시, 17시 (일 4회)

집결지: 다대포해변공원 종합안내소

참여방법: 선착순 현장 참여

라운드테이블 I

〈모든 곳이 플라스틱:

지역의 피해에서 지구적 협약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의 관계성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어떠한 정치적·과학적·시민사회적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지 고찰합니다.

일시: 2025. 9. 28. (일), 15:00 - 16:20

장소: (구)물운 커피숍 앞마당

참여: 현장 참여 및 사전 예약(홈페이지)

언어: 한국어 및 영어(순차 통역 제공)

※우천 시 별도 공지

모더레이터

베르나 피나 (2025바다미술제 전시감독)

참여 연사

심원준(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신영 (해양 정화 단체 해녀와 바다 대표)

노현석(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라운드테이블 II

〈플라스틱 행동:

예술은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까?〉

예술 실천과 환경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이 오염된 환경을 상상과 만남, 성찰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구합니다.

일시: 2025. 9. 28. (일), 16:30 - 18:20

장소: (구)물운 커피숍 앞마당

참여: 현장 참여 및 사전 예약(홈페이지)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순차 통역 제공)

※우천 시 별도 공지

모더레이터

베르나 피나 (2025바다미술제 전시감독)

참여 연사

김지혜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연구원)

마티아스 케슬러 (2025바다미술제 참여작가)

김순임 (시각예술가, 2020년 홍터아트센터 입주작가)

플라스틱 판타스틱의 마르코 카네바치 (2025바다미술제 참여작가)

기조 강연 & 라운드테이블 III

〈업힌 세계들 - 학제 간 대화〉

예술과 학문이 어떻게 회복과 착취의 서사를 드러내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일시: 2025. 10. 2. (목) , 14:00 - 16:00

장소: 다대포해수욕장(동측) 인근 카페
(부산 사하구 물운대 2길 9, 뱅가)

참여: 현장 참여 및 사전 예약(홈페이지)

언어: 영어(순차 통역 제공)

모더레이터

김금화 (2025바다미술제 전시감독)

박범순(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인류세연구센터 센터장)

참여 연사

안 잘라시에비치 (영국 레스터대학교 고생물학 명예교수)

위르겐 렌 (과학사학자, 지구인류학 연구소 창립 소장)

줄리아 애드니토머스 (미국 노터데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라운드테이블 IV

〈개발과 돌봄 사이: 기로에 선 다대포의 미래〉

다대포 해변의 생태 균형을 위협하는 개발 계획이 다시
금 추진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 생태적 기억, 지역 공
동체의 주체성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논의합니다.

일시: 2025. 10. 3. (금) , 15:00 - 17:00

장소: 홍티아트센터 1층 공동작업장
(부산 사하구 다산로106번길 6)

참여: 현장 참여 및 사전 예약(홈페이지)

언어: 한국어

모더레이터

김금화 (2025바다미술제 전시감독)

참여 연사

이성근 (환경운동가, 부산그린트러스트)

조형섭 (2025바다미술제 참여작가)

창파 (실험실 C 디렉터)

안체 마에브스키

〈고생물 협업 페인팅〉

예술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장 초기 생명체의 생김새를 탐구하는 페인팅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일시: 매주 금, 토, 일, 13:00 – 17:00

장소: 다대포해수욕장(서측), 놀이터 앞 (12페이지 참조)

참여: 현장 참여

라울 발히

〈연날리기 워크숍: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적인 연 날리기 워크숍에 참여하여 바람과 비행의 힘을 경험해보세요.

일시: 2025. 9. 27. (토) – 9. 28. (일), 16:00 – 18:00

장소: 다대포해수욕장(서측),

작품 번호 B10 (12페이지 참조)

참여: 현장 참여

※ 우천 시 취소

마리 그리스마

〈물 속에서 만나는 예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다대포 해변의 보이지 않는 생태계를 새롭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① 초보자를 위한 수중 관람

일시: 2025. 9. 28. (일), 10. 11. (토), 10. 25. (토),

14:00 – 15:00

장소: 다대포해수욕장(동측),

작품 번호 F25 (19페이지 참조)

참여: 사전 예약(홈페이지)

모집대상: 다이빙 초보자 및 일반 시민

② 다이버를 위한 수중 관람

일시: 2025. 9. 27. (토), 10. 4. (토), 10. 18. (토),

14:00 – 15:00

장소: 다대포해수욕장(동측),

작품 번호 F25 (19페이지 참조)

참여: 사전 예약(홈페이지)

모집대상: 오픈 워터 자격증 소지자

※ 관람 시 수상 활동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 케슬러 & 아멧 치벨렉

〈직조 워크숍: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카펫으로〉

나만의 플라스틱 카펫을 만들어보세요. 워크숍 참여자는 창작 행위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일시: 매주 일요일, 14:00 – 18:00

장소: 다대포해수욕장(서측),

작품 번호 B19 (12페이지 참조)

참여: 현장 참여

우리엘 올로브

〈식물에게 읽어주기〉

바다도서관과 함께하는 특별 낭독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책의 언어와 식물의 숨결이 어우러지는 자리에서, 뜻밖의 감각을 여는 특별한 경험을 함께하세요.

일시

2025. 9. 28. (일), 14:00 – 15:30 (2잔디광장)

2025. 10. 18. (토), 16:30 – 18:00 (2잔디광장)

2025. 10. 19. (일), 14:00 – 15:30 (1잔디광장)

장소: 다대포해변공원 내 잔디광장

참여: 사전예약

오미자

〈씨앗굴리기 대회〉

여럿이 힘을 모아 거대한 ‘씨앗(다대포 롤)’을 굴리면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온몸으로 경험해보세요.

일시: 2025. 10. 8. (수), 14:00 – 18:00

장소: 다대포해수욕장(서측),

작품 번호 B18 (12페이지 참조)

참여: 현장 참여 및 사전 예약(홈페이지)

※ 참여하는 모든 팀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안나 안데렉

〈실버 붐〉

〈실버 붐〉은 60세 이상의 지역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몸에 깃든 지혜를 공공 공간에서 기념하는 장소 반응형
퍼포먼스입니다.

일시: 2025. 9. 27. (토) – 9. 28. (일),
12:00 – 13:00

장소: 다대포항역 4번 출구 →

다대포해수욕장역 4번 출구 (지하철 1호선 탑승),

다대포해수욕장(상세 추후 홈페이지 공지)

※ 도보 및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진행됩니다.

파울라 프로아뇨 메시아스

〈물결 아래 천 개의 눈동자〉

〈물결 아래 천 개의 눈동자〉는 두 명의 지역 퍼포머가 펼치는 유희적 퍼포먼스로 인간과 다종의 존재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합니다.

일시: 2025. 9. 27. (토), 16:00 – 16:15

장소: 다대포해수욕장(서측),

작품 번호 B9 (12 페이지 참조)

세바 칼푸케오

〈폭포 같은 흐름〉

〈폭포 같은 흐름〉은 20분간 진행되는 퍼포먼스로 물의 유동성이 지닌 힘을 통해 신체와 젠더, 섹슈얼리티를 비롯해 물과 생명, 숲, 생태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일시: 2025. 9. 27. (토), 18:30 – 19:00

장소: 다대포해수욕장(서측),

작품 번호 B11 (12 페이지 참조)

9.27. —
11.2.

다대포해수욕장
Dadaepo Beach

Sea
Art Festival
2025
바다미술제

물 위 를 걷 는 물 걸 들

Under
currents

2025바다미술제를 찾아주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 기간동안 다대포해수욕장역, 다대포해변공원 두 곳에서 종합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전시 관람을 위한 자료, 2025바다미술제 기념 아트상품을 비롯하여 역대 바다미술제 도록 및 아트상품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9. 27. (토) - 11. 2. (일) 10:00 - 18:00

위치

1. 다대포해수욕장역 종합안내소 (역사 내)
2. 다대포해변공원 종합안내소 (1잔디광장 입구)

2025바다미술제 아트상품

티셔츠, 핸드보틀, NFC키링, 모자, 에코백



2025바다미술제를 작품번호를 따라 관람하고, 바다의 표면에 머무는 시선을 넘어, 그 아래에 숨겨진 다층적이고 다성적인 혼종의 풍경을 발견해보세요.

(소요시간: 2시간 30분)

발견

탐정이 되어 다대포에 숨겨진 작품을 찾아보세요.

(소요시간: 60분)

E23 → E22 → A1 → B2 → B3-1 →
B3-2 → F24 → F3-5 → F25 → C4-1 →
C3-3 → C3-4 → C5 → C4-2

사색

고우니 생태길을 걸으며 작품을 만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소요시간: 30분)

D20-1 ~ D20-14 → D21

어성

작품에 이끌려 부드러운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며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 보세요.

(소요시간: 40분)

B19 → B18 → B17 → B16 → B15 → B14 →
B13 → B12 → B11 → B10 → B9 →
B8 → B7 → B6 → C4 → C3
※ C 물운대 해안산책로 데크길 아래
해수욕장으로 걸어보세요

참여

만지고, 날리고, 보고, 듣고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시를 즐겨보세요.

※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관람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25 → F24 → B7 → B9 → B10 → B18 → B19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설립	1999. 12. 23.
회원	84명
조직위원장	박형준
집행위원장	이준
조직구성	총회, 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처 등
주소	4872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6 한성빌딩 4층
전화	Tel. 051-503-6111
팩스	Fax. 051-503-6584

연혁

1981	부산청년비엔날레 창립
1987	바다미술제 창립
1994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창립
1998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98PICAF) 개최
1999	(사)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 설립
2000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2000PICAF) 개최
2001	부산비엔날레로 명칭변경
2002	2002부산비엔날레 개최
2003	전문예술법인 지정(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2004	2004부산비엔날레 개최
2006	2006부산비엔날레 개최
2008	2008부산비엔날레 개최
2010	2010부산비엔날레 개최
2011	2011바다미술제 개최
2012	2012부산비엔날레 개최
2013	2013바다미술제 개최
2014	2014부산비엔날레 개최
2015	2015바다미술제 개최
2016	2016부산비엔날레 개최
2017	2017바다미술제 개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18	2018부산비엔날레 개최
2019	2019바다미술제 개최
2020	2020부산비엔날레 개최
2021	2021바다미술제 개최
2022	2022부산비엔날레 개최
2023	2023바다미술제 개최
2024	2024부산비엔날레 개최

주최



후원



협력기관



협찬



2025바다미술제

